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by Residential Area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이 영 분**

박사수료 이 유 경***

Dept.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

Professor : Lee, Youngboon

Doctoral Candidate : Lee, Yu-Kyung

<ABSTRACT>

This is a study that explores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ir feelings of marriage satisfaction by residential area. The aim was to verify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secure from multicultural marriage.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widely distributed a questionnaire that targeted women who were participating in education and other services at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immigrant women shelters, and Korean language classrooms which are located in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Data analysis involv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two factors, namely, (1)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 sub-scale of self-differentiation, and (2)marginalization, a sub-scale of acculturation, had the lowest average. In verifying its various hypotheses, the study achie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difference of the mean in the marriag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the frequency of meetings with the married woman's parents-in-law and her own parents, and the average cost of supporting the woman's parents-in-law and her own parents. Secondly,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variable of influencing marriage satisfaction showed negative influence in the case of women dwell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is shows that women residing in cities whether small, medium or large have higher marriage satisfaction. Also, as a result of verifying whether self-differentiation has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the element of interpersonal-relations differenti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Thirdly, as for influence of acculturation upon marriage satisfaction, the study showed that just integration, which is a sub-scale of acculturation had positive effect on marriag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study showed that the 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mong the sub-scales of self-differenti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that integration among the sub-scales in accultur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s well as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the study suggests the integration of the women's families with the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in the communities where the women reside.

▲주요어(Key Words) : 결혼이민자 여성(married immigrant women),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문화적응(acculturation), 결혼만족도(marriage satisfaction)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주 저 자 : 이영분 (E-mail : yblee@kku.ac.kr)

*** 교신저자 : 이유경 (E-mail : lidwinyk@hanmail.net)

I. 서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간 이주로 인한 문화접촉이 일어나면서 문화적응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으며, 1970년대 일본의 농촌으로 여성들이 혼인을 목적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주로 동남아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혼인을 목적으로 이주해오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개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국에 119곳으로 한국어교실, 통역, 상담, 교육, 문화, 아동양육과 임신출산지도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9년 8월 29일 기준).

국제결혼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최경숙, 2006; 하밍타이, 2005)를 제시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국제결혼은 외국인 가정주부의 사회적 배경, 의사소통 능력의 제한(박종삼, 1983; 송성자, 1974),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등(Ataca & Berry, 2002), 결혼의 성립초기부터 매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한 가정의 이혼은 2006년에는 6,100여건, 2007년에는 8,700여건, 2008년에는 11,000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총이혼 건수는 2006년에는 125,032건, 2007년에는 124,072건, 2008년에는 116,535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09). 이렇게 국제결혼한 가정의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결혼한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문화수용의 수준과 통합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 혹은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었다(김인철, 2008; 박태영, 1998; 최혜지, 2009). 문화적 요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한국문화 정체성이 높을수록, 모국문화 정체성이 낮을수록 높았다(권복순·차보현, 2006). 이렇듯 문화정체성 변인은 모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slie & Letiecq, 2004). 결혼이민을 선택한 여성들은 초기의 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회로부터의 지원 없이 스스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며 갈등과 적응양식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고(한건수, 2006), 이러한 사실은 국제결혼한 가족과 부부의 문화학습, 문화적 갈등과 적응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21. 제정)이 만들어져 정부 부처에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한시적이어서 다시 여성들은 홀로 적응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여성들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적응의 정도가 이 여성들에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결혼생활을 유지할 때 주관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는 개인의 자아분화 능력도 중요하다. 주관적인 만족이기 때문에 자아분화 능력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을 지배하면서 원가족 안에서의 정서과정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가족의 건강성과 자기분화로부터 세대간 전이가 일어난다는 결과(하상희, 2007)와 자아분화와 출생가족과 상관관계가 있다(민혜영, 2005)는 연구결과 등이 있다. 여성의 개인적인 내면과 남편을 둘러싼 확대가족의 관계안에서 분화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여성들의 결혼만족은 달라질 것이다. 자아분화(Bowen, 1976)는 자신이 속한 가정의 가족 체계 안에서 결정되고,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자동적인 사고와 감정은 개인의 내면과 타인과의 관계안에서 독립적일지 연합을 이룰지는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분화와 결혼만족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혼인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의 자아분화가 높게 나타난 결과(이현주·강순옥, 1997; 전춘애, 1994; 한영숙, 2007)에서 남편이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전춘애, 1994; 조은경·정혜정, 2002)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아내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연구(한영숙, 2007) 등이 있다.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아분화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함에 있어 국내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 결혼행복감 등 부부관계나 갈등에 관한 연구(김오남, 2006; 김연수, 2007; 이종원, 2003; 전춘애, 1994; 조은경·정혜정, 2002; 한미향, 2000; 하상희, 2008; 한영숙, 2007)에서는 주로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과 수입, 원가족 관련 변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적응, 생활만족도 등이 자아분화와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다(이종원, 2003).

특히 농촌지역(김한곤, 2009; 송미영·박경희, 2008; 양순미, 2006, 2007)과 중소도시(김은경, 2008), 서울지역(김연수, 2007)의 결혼만족, 결혼행복감 등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 평균월소득, 남편과의 연령차(김한곤, 2009; 송미영 등, 2008), 직업, 적응과 부부상호작용(양순미, 2006), 출신국의 친정가족에게 송금 유무(김한곤, 2009), 사전정보의 일치와 결혼생활의 어려움 및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 경험(김은경, 2008)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에 미흡했던 결혼이민자 여성의 거주 지역별로 즉, 농어촌지역인지 중소도시인지 대도시인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 정도와 문화적응 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또 이 여성들의 자아분화, 문화적응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거주지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 문화적응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분화, 문화적응정도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 질문으로 거주지역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 자아분화와 문화적응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자아분화의 형태와 문화적응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자의 주제에 맞춰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¹⁾ 여성은 한국남성과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온 여성으로 현재 한국남성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여성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아분화에 대한 개념은 Bowen (1976)의 가족체계 이론에서의 핵심이다. 정신내적 분화는 지적과정과 정서적 과정을 분리하여 자신을 통제하면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인관계적 분화는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 정도에 대한 것으로 핵가족이나 확대가족과의 유대를 끊지 않으면서도 독립성을 발달시킨 정도를 말한다(이영분 등, 2008).

그러므로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게 된다.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융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개별성을 성장시키지 못하여 수동적인 거짓자아가 발달하게 되고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감정 반사적인 관계패턴을 형성하거나 가족관계안에서는 융해되려는 경향이 있다(정문자 등, 2007).

Bowen 이론의 또 다른 중심개념으로 삼각관계는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다. 삼각관계는 서로 의존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이인관계가 세 개 모인 것이다. 가족 내 삼각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에 제삼자를 끌어들이면서 형성된다(McGoldrick et al., 1999, 이영분 등 역, 2007제인용). 만약 삼각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죽는다면, 보통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한다. 배우들은 바뀌지만 그 연극은 세대를 거쳐 계속된다(Kerr and Bowen, 1988, 남순현 등 역, 2007제인용).

Bowen 이론의 정서적 단절은 미분화된 가족의 투사과정에서 융합된 가족구성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세대간에 정서적 융합이 심할수록 단절의 경향이 높다. 원가족과 접촉할수록 생기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먼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부모와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원가족으로부터 떠나 정서적 단절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원가족의 정서적 의존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혜영(2005)은 과거 출생 가족의 영향력이 긍정적일때 높은 자아분화 수준을 보인다고 했다.

문화적응에 대한 가장 초창기 연구는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Furnham & Bochner(1986)의 연구에 의하면 190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70%가 이민자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 당시 미국에서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반향을 일으켜 법안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문화적응을 돕는데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Robertson, 1903).

문화접촉으로 시작된 문화차이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빈번한 이주로 인한 문화접촉으로 문화적응의 현상들이 발생하면서였다(양옥경 등, 2007).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중 Pederson(1995; Chai, 2001에서 제인용)은 이주자의 적응과정을 5단계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허니문단계, 두 번째는 분열단계, 세 번째는 재통합단계, 네 번째는 자치단계, 다섯 번째는 상호의존단계로 설명했다. 첫 번째인 허니문단계는 흥분과 매료상태에 빠져 있고, 두 번째인 분열단계에는 출신국가와 유사성이 처음 인식했던 것보다 피상적이며 차이가 큼을 이는 인식 단계이며, 세 번째인 재통합의 단계는 새로운 환경을 이해는 하지만 완전하려면 멀다는 것을 자주 느끼는 단계이며, 네 번째인 자치단계는 많은 학습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의존단계는 소외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단계이다.

문화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집단은 크게 세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동성, 자발성, 연속성이다(Berry & Sam, 1997). 첫째, 이동성은 체류국가 문화로 옮겨갔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는지의 문제다. 이민자들은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로 옮겨간 사람들이고 원주민과 민족문화집단은 새로운 집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둘째, 자발성은 문화적 이동이 자발적이었는지의 여부로 이민자나 유학생 등의 체류자들은 자발적인 사람들이고 난민은 비자발적인 사람들이다. 셋째, 연속성은 얼마나 오래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지의 문제로 이민 간 경우라면 비교적 오랜 기간 새

1)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이고 혼인귀화자는 41,417명이다.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서울 28.7%(57,281명), 경기 27.1%(53,998명), 인천 6%(11,872명), 경남 5.1%(10,107명), 충남 4.3%(8,614명)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61.8%로 비중이 높다(통계청, 2009. 9. 22자).

환경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여행이나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의 체류자들은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다.

문화심리학자인 Berry(1990)는 문화적응 모델 중에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차원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또한 4가지 유형은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이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동화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않고 새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리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주변화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Berry와 Sam(1997)은 문화적응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접촉단계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초기 단계이다. 두 번째는 갈등단계로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사회가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해결단계로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 즉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응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Atkinson 등(1998)은 소수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과정에서 적응 초기에는 자신과 출생국가의 문화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동화유형을 보이다가 다시 저항과 반작용으로 높은 평가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반작용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차츰 합리적 평가를 하는 통합의 유형으로 안정화 될 것이다(금명자 등, 2004 재인용). 적응의 방법 중에 통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연구(금명자 등, 2004; 김인철, 2007; 양옥경 등, 2007; 최혜지, 2009)는 밝혔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의 일정시점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국내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원가족 관련변인이었다(하상희, 2008). 또한 결혼적응, 생활만족도 등이 자아분화와 큰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이종원, 2003)와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 등 부부관계나 갈등에 관한 연구(김오남, 2006; 전춘애, 1994; 한영숙, 2007)에서는 주로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과 수입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연수, 2007; 김인철, 2008; 최경숙, 2006; 표갑수·권명희, 2009)에서는 학력, 결혼횟수, 결혼 전 만남 횟수, 남편의 이해도, 가족관계에서의 이해와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7세 이상일 경우, 대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 여성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남편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높다(송미영·박경희, 2008)는 연구 또한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김한곤, 2009)생활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부간의 연령차이, 출신국의 친정가족에게 송금유무, 남편직업, 출산자녀유무, 월평균소득 순이었다.

양순미(2006, 2007) 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과 남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결혼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성과 남편들의 적응수준이었다. 정현숙·양순미(2009)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어 결혼생활의 적응과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권복순·차보현(2006)은 농촌지역 코시안 주부대상 연구에서 학력 낮을수록, 소득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중소도시(김은경, 2008)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정보의 일치, 결혼생활의 어려움,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한 경험 등이었다. 서울지역 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은 평균월소득이 300만원 이상, 20대 여성일수록, 직업 없는 전업주부일수록 결혼행복감이 높았다(김연수, 2007).

이상에서 서울, 중소도시, 농촌지역별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별로 나누어서 결혼만족도, 문화적응, 자아분화,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 중심으로 가능한 전국적인 분포를 파악하려는 의도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표본추출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이주센터, 한국어교실, 군청 등의 프로그램대상자와 결혼이민자 여성을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배부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345부를, 이 중에서 288부가 회수되어 부적절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63부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사를 위해 결혼만족도, 자아분화, 문화적응 등을 측정하는 척도와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족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전문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영어, 러시아어로 총 5개 국어로 각각 번안 하였으며, 한국어 설문지와 함께 조사에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척도는 Roach 등(1981)에 의해 개발된 MS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우리 문화에 맞게 압축 구성한 내용으로 홍숙선(2001), 김혜경(2005) 등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총 18문항으로 6개는 부정문항, 12개는 긍정문항으로 각 점수를 총합한 후 다시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만족도는 총 18문항으로 부부간에 애정표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는지의 여부와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묻는 내용과 결혼생활로 인한 구속감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후회 등 결혼생활에서 연구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의 척도는 Bray 등(1984)의 8개 척도를 전춘애(1994)가 네 개 영역 51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네 개 영역은 정신내적 분화에 대해 14문항(1-14번)과 대인관계적 분화에 대해 11문항(15-25번), 삼각관계는 19문항(26-44번), 정서적 단절 7문항(45-51번)이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내적 분화와 대인관계적 분화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고 삼각관계와 정서적 단절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통계의 편의상 삼각관계와 정서적 단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도록 다시 역코딩을 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7이었다.

문화적응의 척도는 Barry D. T. (2001)가 Berry의 이차원 문화적응 이론의 4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동아시아 문화적응 측정(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척도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응 정도는 동화(assimilation) 8문항(1, 5, 9, 13, 17, 21, 24, 27), 분리(separation) 7문항 (2, 6, 10, 14, 18, 22, 25), 통합(integration) 5문항(3, 7, 11, 15, 19), 주변화(marginalization) 9문항(4, 8, 12, 16, 20, 23, 26, 28, 29)을 질문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5 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의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1과 같다. 출신국은 베트남이 37.3%(9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으로 33.5%(88명)로 나타났고, 필리핀이 13.3%(35명), 일본이 11.4%(30명)순이었고, 러시아가 2.3%(6명), 대만, 몽골,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기타로 분류하였더니 2.3%(6명)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외 한국어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다양했으며, 20대가 59.4%(1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27.4%(64명)를 차지하였으며, 10대 후반이 4.1%(1명)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연령대는 20대가 139명(59.4%)으로 가장 높고, 이 여성들의 남편연령대는 40대가 120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29.6세였고, 남편들의 연령은 40.9세였다. 그러므로 이 여성들의 연령차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학력수준은 고졸이 41.6%(10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20.2%(49명)이고 대졸이 16.0%(39명), 그 다음은 전문대졸이 14.4% (20명)였으며, 대학원졸업도 4.5%(11명), 초졸 이하 4.1%(10명)가 있었다.

가구당 평균 월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25.3%(5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3.6%(55명)로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1.5%(50명)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이 15.5%(36명), 300만원 이상과 400만원 이상이 각 9.0%(21명), 5.2%(12명)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아 통계청(2007)의 2006년 농가 월평균 소득이 269만원, 2007년 도시근로자 소득은 367만원인 것을 비교해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가정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것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기간은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9.7%(7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20.9% (55명)이었고, 다음이 1년 미만으로 20.6%(51명)로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4.8%(39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4%(22명), 15년 이상이 1.1%(3명)순이었다. 조사대상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결혼기간은 5년 이내가 74.2% (184명)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들의 출생순위는 장녀가 37.6%(67명)로 가장 높았고, 둘째가 27.0%(48명)로 나타났다. 시댁 연평균 부양비를 질문했더니, 없다가 38.6%(39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2.8%(23명)였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16.8%(17명)로

<표 1> 응답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여성연령	10대	1(.4)	출생국가	러시아	6(2.3)	
	20대	139(59.4)		베트남	98(37.3)	
	30대	64(27.4)		일본	30(11.4)	
	40대	29(12.4)		중국	88(33.5)	
	50대	1(.4)		필리핀	35(13.3)	
거주지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포함)	62(23.6)	기타	6(2.3)		
	중소도시	124(47.1)				
	농어촌지역	77(29.3)				
여성학력	초졸 이하	10(4.1)	가구당 평균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6(15.5)	
	중 졸	49(20.2)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9(16.0)	
	고 졸	101(41.6)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5(23.6)	
	전문대졸	33(13.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0(21.5)	
	대학원졸	11(4.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1(9.0)	
결혼기간	1년 미만	51(20.6)	400만원 이상	12(5.2)		
	1년 이상~2년 미만	55(20.9)	출생순위	첫 째	67(37.6)	
	2년 이상~5년 미만	78(29.7)		둘 째	48(27.0)	
	5년 이상~10년 미만	39(14.8)		셋 째	24(13.5)	
	10년 이상~15년 미만	22(8.4)		넷 째	17(9.6)	
	15년 이상	3(1.1)		다섯째	22(12.4)	
		여섯째 이상		11(6.2)		
연평균 친정 부양비	모른다	6(5.4)	연평균 시댁 부양비	모른다	17(16.8)	
	없 다	53(47.3)		없 다	39(38.6)	
	50만원 미만	0(.0)		50만원 미만	1(1.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9)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3(29.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3(22.8)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9.8)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2(11.9)			
500만원 이상	4(3.6)	500만원 이상	8(7.9)			
연평균 친정부모 만남횟수	없 다	36(25.2)	연평균 시부모 만남횟수	없 다	11(6.8)	
	2년~5년사이에 한번	13(9.1)		1년 이상~5년 미만	42(25.9)	
	1번	62(43.4)		5년 이상~10년 미만	17(10.5)	
	2번	19(13.3)		10년 이상~20년 미만	15(9.3)	
	3번	6(4.2)		20년 이상	77(47.5)	
4번 이상	7(4.9)					
가족형태	부 부	59(24.5)	혼인상태	초 혼	223(91.8)	
	부부와 자녀	92(38.2)		재 혼	12(4.9)	
	시부모와 부부와 자녀	48(19.9)		기 타	8(3.2)	
	시부모와 부부	20(8.3)				
	기 타	22(9.1)				

* 무응답에 따라 전체빈도는 차이가 있음

나타났다. 또 친정 연평균 부양비에 대해 질문했더니, 없다가 47.3%(5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5%(33명),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도 9.8%(11명)나 되었다. 따라서 친정이나 시댁에 부양비를 보내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연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친정에 29.5%(33명), 시댁에 22.8%(23명)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 연평균 만남횟수는 47.5%(77명)가 20번 이상으로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달에 한번이상은 시댁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정 연평균 만남횟수는 한번이 43.4%(62명)로 나타났고, 없는 경우가 25.2%(36명)였다. 2번이상도 13.3%(19명)였고, 4번이상도 4.9%(7명)나 되었다.

또한 가족형태 중 부부만 사는 경우가 24.5%(59명),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형태는 38.2%(92명), 시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19.9%(48명), 시부모와 부부만 사는 형태가 8.3%(20명), 기타가 9.1%(22명)였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가 47.1%(124명)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23.6%(62명), 농어촌 29.3%(77명)순이었다. 혼인상태는 초혼인 경우가 91.8%(223명), 재혼인 경우가 4.9%(12명)이고 기타의 경우가 3.2%(8명)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2와 같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남편의 연령대는 40대가 51.7%(120명), 그 다음이 30대 37.9%(88명)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9.9%(2명)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이 43.3%(104명)로 가장

<표 2> 결혼이민자여성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남편연령	20대	7(3.0)	남편직업	무 직	11(4.6)
	30대	88(37.9)		학 생	2(.8)
	40대	120(51.7)		판매 및 서비스	10(4.2)
	50대	15(6.5)		생산직	53(22.4)
	60대 이상	2(.9)		사무직	37(15.6)
남편학력	초졸 이하	7(2.9)		관리직	12(5.1)
	중 졸	32(13.4)		전문직	10(4.2)
	고 졸	104(43.3)		자영업	21(8.9)
	전문대졸	34(14.3)		기 타	81(34.2)
	대 졸	42(17.6)		아내와의 연령차	동갑 및 연하
	대학원졸	20(8.4)	1세~5세 미만		47(19.0)
남편의 출생순서	첫 째	54(31.2)	6세~10세 미만		61(24.6)
	둘 째	32(18.5)	11세~15세 미만		67(27.0)
	셋 째	36(20.8)	16세~20세 미만		49(19.8)
	넷 째	18(10.4)	20세 이상	16(6.5)	
	다섯째	20(11.6)	남편의 혼인상태	초 혼	205(85.1)
	여섯째 이상	13(7.5)		재 혼	27(11.2)
		기 타		9(3.7)	

*무응답에 따라 전체빈도는 차이가 있음

<표 3> 자아분화와 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의 기술통계

	변 수	N	평 균	표준편차
자아분화	정신내적분화 ^a	262	3.49	.492
	대인관계적분화 ^a	262	2.82	.443
	삼각관계 ^a	262	3.81	.609
	정서적 단절 ^a	169	3.72	.742
	계		3.46	.572
문화적응	동화 ^b	263	3.43	1.011
	분리 ^b	263	3.93	1.039
	통합 ^b	263	4.36	1.025
	주변화 ^b	263	2.72	1.138
	계		3.61	1.053
결혼만족도 ^a		262	3.18	.470

a.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b. 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많았고, 대졸이 17.6%(42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초졸 이하가 2.9%(7명)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학력 또한 고졸이 41.6%(101명)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면 남편 또한 고졸이 43.3%(104명)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 남편의 출생순위는 장남이 31.2%(54명)로 가장 많았고, 셋째가 20.8%(36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직업은 기타가 34.2%(81명)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타로 응답을 하면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이 생산직으로 22.4%(53명)를 차지했으며, 학생인 경우도 .8%(2명)이었다.

아내와의 연령차는 11세-15세 미만이 27.0%(6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세-10세 미만으로 24.6%(61명)였으며, 그 다음이 16세-20세 미만의 경우도 19.8%(49명)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29.6세이고 남편들의 연령이 40.9세인 것을 보면 연령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혼인지 재혼인지를 질문했더니 초혼인 경우가 85.1%(205명)로 나타났고, 재혼인 경우가 11.2%(27명)였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혼인상태 또한 초혼이 91.8%(223명)이고 재혼이 4.9%(12명)인 것을 보면 재혼남성의 비율이 6.3% 정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정신내적분화의 평균값은 3.49, 표준편차는 .492 이고, 대인관계적 분화는 평균값이 2.82, 표준편차는 .443 이었다. 정신내적분화의 척도가 5점척도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신내적분화는 평균이 3.49로 나타나 중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여성의 대인관계적 분화는 평균이 2.82로 중간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각관계는 평균값이 3.81, 표준편차는 .609 이고, 정서적 단절은 평균값이 3.72, 표준편차는 .742이었다. 문화적응의 하위변인인 동화의 평균은 3.43이고 표준편차는 1.011이고, 분리의 평균은 3.93이고 표준편차는 1.039이었다. 통합의 평균은 4.36이고 표준편차는 1.025이고, 주변화의 평균은 2.72이고 표준편차는 1.138 이었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3.18이고 표준편차는 .470이고 나타났다.

4. 검증 결과

1) 결혼이민자 여성의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분화, 문화적응,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

(1)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중에 연령과 학력, 자녀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결혼기간과 평균월소득에서였다.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결혼기간과 평균월소

득 모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집단이 농어촌지역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만남 횟수와 부모 연평균 부양비의 차이검증에는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만남횟수와 시부모, 친정부모에게 부양비를 드리는 경우, 모두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시부모 만나는 횟수와 친정부모에게 연평균 부양비를 드리는 경우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집단이 농어촌지역과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친정부모를 만나는 횟수에 대한 사후검증(Scheffe) 결과는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이 중소도시의 집단과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친정부모를 만나는 경우에 있어서 대도시와 비슷하리라 추측 되었지만, 예상외로 농어촌지역과 대도시의 경우가 같은 집단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시부모에게 연평균 부양비를 드리는 경우에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집단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집단과 평균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경우에 즉 시부모에게 부양비를 드리는 경우에 중소도시는 대도시와도 농어촌지역과 묶인 것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집단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2) 거주지역에 따른 자아분화, 문화적응, 결혼만족도의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자아분화와 문화적응의 하위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거주지역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변인은 삼각관계(평균=3.65, 표준편차=.659)이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정서적 단절(평균=3.82, 표준편차=.695),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삼각관계(평균=3.98, 표준편차=.540)였다. 거주지역별로 평균이 가장 낮은 변인은 모두 대인관계적 분화였는데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평균이 2.78(표준편차=

<표 4>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내용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평균월소득	시부모만남횟수	친정부모만남횟수	친정연평균부양비	시부모연평균부양비
대도시	N	50	52	56	32	49	38	35	36	34
	평균(표준편차)	2.54(.734)	3.42(1.348)	2.61(1.397)	2.25(1.016)	3.65(1.284)	3.05(1.335)	2.20(.759)	4.22(2.030)	4.09(2.207)
중소도시	N	114	118	118	57	114	67	38	44	40
	평균(표준편차)	2.46(.681)	3.27(1.160)	2.55(1.166)	2.16(.797)	3.27(1.360)	3.43(1.417)	2.48(1.274)	3.93(2.039)	3.48(2.183)
농어촌	N	70	73	74	54	70	57	37	32	27
	평균(표준편차)	2.63(.802)	3.29(1.196)	3.16(1.314)	2.59(1.206)	2.06(.976)	4.30(1.349)	1.62(1.114)	2.56(1.294)	2.63(1.523)
	F	1.096	.299	5.738*	2.708	29.720***	10.768***	6.813**	7.719**	3.858*
	사후검증(Scheffe)			A, B		A, B	A, B	A, C	A, B	A, B
				C		C	C	B	C	B, C

주) *p<.05, **p<.01, ***p<.001

무응답에 따라 전체빈도는 차이가 있음

<표 5> 거주지역에 따른 자아분화, 문화적응, 결혼만족도

변수	내용	정신내적분화 ^a	대인관계적 분화 ^a	삼각관계 ^a	정서적단절 ^a	동화 ^b	분리 ^b	통합 ^b	주변화 ^b	결혼만족도 ^a
대도시	N	62	62	62	41	62	62	62	62	62
	평균(표준편차)	3.50(.500)	2.82(.414)	3.65(.659)	3.55(.745)	3.53(1.095)	4.09(1.187)	4.24(1.095)	2.89(1.131)	3.22(.585)
중소 도시	N	123	123	123	73	124	124	124	124	123
	평균(표준편차)	3.47(.520)	2.78(.436)	3.79(.604)	3.82(.695)	3.40(1.058)	3.88(1.049)	4.42(.995)	2.75(1.181)	3.23(.425)
농어촌	N	77	77	77	55	77	77	77	77	77
	평균(표준편차)	3.53(.440)	2.89(.472)	3.98(.540)	3.72(.787)	3.39(.859)	3.86(.881)	4.38(1.018)	2.54(1.058)	3.06(.416)
F		.394	1.393	5.239**	1.802	.444	1.058	.651	1.649	3.478*
사후검증 (Scheffe)				A, B					A, B	
				B, C					C	

주) *p<.05, **p<.01, ***p<.001

a.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b. 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무응답에 따라 전체빈도는 차이가 있음

.436)로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즉,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정신내적분화와 대인관계적 분화, 정서적 단절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문화적응의 하위변인인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인 삼각관계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집단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 중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 평균이 3.23(표준편차=.425)으로 다른 지역 여성들에 비해 약간 높았고, 결혼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농어촌지역(평균=3.06, 표준편차=.416)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집단이 농어촌지역과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분화,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R²)은 13.8%이고, F값은 2.774, p<.05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적으로 농어촌지역더미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연령과 학력, 결혼기간, 평균월소득, 자녀수, 중소도시더미 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권복순 등, 2006)와 연령차이와 학력이 고졸인 경우(송미영 등, 200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 즉, 농어촌지역의 여성들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여성들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드러났다.

(2)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 여성의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다음 <표 7>의 결과를 얻었다.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²)은 7.5%, F=3.264, p<.05였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은 대인관계적 분화(β=-.203, p<.05)만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대인관계적 분화는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 정도에 대한 것으로 핵가족이나 확대가족과의 유대를 끊지 않으면서도 독립성을 발달시킨 정도를 말하는데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으로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적 분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 여성의 핵가족과 원가족 및 시댁가족과의 독립성이 발달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이 모델의 설명력(R²)은 13.8%이고, F=10.236, p<.001 였다.

문화적응의 하위변인인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의 변인 중에서 통합만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통합의 의미는 여성들의 출생국가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여성들의 문화적응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의 하위변인 중 통합(β=.171, p<.05)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최혜지, 2009)에서 통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과 일치한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구 분	변 인	결혼만족도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 령	.103	.059	1.753
	학 력	-.054	.035	-1.543
	결혼기간	-.072	.043	-1.691
	평균월소득	-.001	.032	-.019
	자녀수	.050	.047	1.059
	중소도시더미	-.142	.102	-1.384
	농어촌더미	-.356	.118	-3.005*
상 수	3.392	.226	15.009***	
	R ²	.138		
	F	2.774*		

주) *p<.05, **p<.01, ***p<.001

<표 7>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구 분	하위변인	결혼만족도		
		b	β	t
자아분화	정신내적 분화	-.033	-.033	-.384
	대인관계적 분화	-.229	-.203	-2.381*
	삼각관계	.028	.036	.408
	정서적 단절	-.098	-.145	-1.730
상 수	4.171	.339	12.298***	
	R ²	.075		
	F	3.264*		

주) *p<.05, **p<.01, ***p<.001

<표 8>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구 분	하위변인	결혼만족도		
		b	β	t
문화적응	동 화	.057	.123	1.724
	분 리	.046	.101	1.480
	통 합	.078	.171	2.515*
	주변화	.054	.131	1.846
상 수	2.310	.143	16.153***	
	R ²	.138		
	F	10.236***		

주)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거주지역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분화와 문화적응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하위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검증의 결과,

첫째, 거주지역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를 검증했더니, 결혼기간, 평균 월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연령, 학력, 자녀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부모와 친정부모와의 연평균 만남 횟수, 연평균 부양비 부담을 하는 경우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 결과, 결혼기간, 평균월소득, 시부모와 연평균 만남횟수, 친정 부모와 시부모 연평균 부양비 부담에 대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어촌지역과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친정부모를 만나는

윗수의 사후검증(Scheffe) 결과에서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이 중소도시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자아분화, 문화적응,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삼각관계와 결혼만족도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Scheffe)을 했더니, 삼각관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결혼만족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어촌지역과 차이가 있었다.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지역의 여성들이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여성들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변인인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월평균소득,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인관계 분화만이 나타나 여성들이 독립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가 부부갈등이 낮고 결혼만족도가 높다(한영숙, 2007)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조은경·정혜정, 2007)는 연구와는 비슷한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인관계적 분화의 평균은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 2.82로 가장 낮았다. 대인관계적 분화의 의미는 개별성과 융합성의 균형정도로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의 유대를 끊지 않으면서도 독립성을 발달시킨 정도이므로 연구대상의 여성들에게는 전반적으로 핵가족과 확대가족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문화적응의 결혼만족도 영향력은 통합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합이 잘 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의 하위변인 중 통합의 평균은 4.36으로 가장 높았다. 통합은 출생국가의 문화를 잘 수용하면서 한국문화도 수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금명자 등, 2004; 김인철, 2008; 양옥경외, 2007; 최혜지, 2009)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에 있어서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던 내용이므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여성들이 더 높다는 것이 드러나 농어촌지역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부부가 함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이웃과 일촌맺기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주지역별로 나타난 여성들의 민감한 주제인 친정에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이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생활비를 쪼개어 모아 친정부모에게 송금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둘러싼 핵가족과 확대가족 등에 대한 가족복지차원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아분화의 대인관계적 분화를 높이면서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이 여성들에게 단계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모국의 문화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문화의 발생 배경 등 문화이해를 위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동시에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여성의 현재가족, 즉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함께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재사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는 시댁의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일시적, 한시적, 혹은 일회성의 교육이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범사회적인 차원의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당사자인 결혼이민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가족, 확대가족, 더 나아가 원가족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1(2), 5-32.
- 권복순·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회지, 58(3), 109-134.
- 금명자·권해수·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6(2), 295-308.
- 김오남(2006). 결혼이민자 여성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8, 33-76.
-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 김연수(2007). 서울거주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1, 217-252.
- 김인철(2008).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한곤(2009).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경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지*, 19(1), 83-120.
- 김혜경(2005). 여성 지체장애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순현·전영주·황영훈 역(2007). *Bowen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민혜영(2005).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간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145-163.
- 박중삼(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3), 1-13.
- 박태영(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재미교포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 27-50.
- 송미영·박경희(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26, 53-70.
-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의 적응과 결혼만족에 작용하는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17-230.
- _____(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작용하는 변인과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35-145.
- 양옥경·김연수·이방현(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이영분·신영화·권진숙·박태영·최선령·최현미(2008). 가족치료 모델과 사례. 서울, 학지사.
- 이종원(2003). 원가족 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147-163.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정혜정·이선희·전영주(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현숙·양순미(2009). 농촌의 혼인 관련 인구학적 현황과 농촌 미혼남성의 혼인과 국제결혼 관련 태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7-29.
- 조은경·정혜정(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6.
- 최경숙(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1(1), 163-194.
- 표갑수·권명희(2009). 충북지역 다문화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28, 21-48.
- 하명타이(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상희(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 한건수(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5-219.
- 한미향(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3.
- 홍숙선(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taca, B. & Berry, J. W.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arry, D. T.(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01-234.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erry, J. W. & R, Kalin(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 310-320.
- Berry, J. W. & D. L. Sam(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Segall, M. & Kagitcibasi, Cigdem(2nd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291-326). Boston: Allyn and Bacon.
- Bowen, M. (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42-90. New York:Garden.
- Bradbury, T. N. & Fincham, and Steven R. H. Beach(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980.

Bray, J. H., Williamson D. S., & Malone, P. E. (1984a).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stionnaire Manual. *Unpublished document.*

Bray, J. H., Williamson D. S., & Malone, P. E. (1984b).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Personal Author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67-178.

Chai, Rosemary C. K.(2001). *An exploratory study of cross-cultural adaptation of U. S. expatriates in Singapo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 London: Methuen.

Kim, K. (2005). *Self-differentiation, perceived family conflict, and cultural values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Leslie, L. A., & Letiecq, B. L. (2004). Marital quality of African American and white partner in interracial couple. *Personal Relationships*, 11, 559-574.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Robertson, J. W. (1903). The prvelance of insanity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Insanity*. 60, 81-82.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통계청, www.nso.go.kr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mfsc.familynet.or.kr

접수 일 : 2009년 11월 15일

심사 일 : 2009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2월 25일